

과거에 불시착한 미래인의 시간여행

‘지적 무협지’ 겨냥한 복거일의 과학소설 「역사속의 나그네」

21세기의 미래인이 시간여행 도중 16세기에 불시착해 과거의 환경 속에서 과거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얼핏 보기에 만화에서나 가능할 듯싶은 ‘항당무계한’ 이야기를 담은 이색 소설이 출간됐다. 첫 소설 「비명을 찾아서」(1987)로 ‘대체역사소설’이라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보였던 복거일씨가 최근 그 일부를 세권으로 상재한 「역사 속의 나그네」(문학과학성사)가 바로 그것.

지난 1988년부터 3년동안 「중앙경제신문」에 연재됐던 것으로 이제까지 거의 씌어지지도, 또 제대로 읽히지도 않았던 우리나라 과학소설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이 소설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가정 위에서 지식의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이채롭다. 작가가 스스로는 “미래소설의 모습을 많이 지닌 역사소설”이라고 자신의 작품을 규정하면서 “그러나 더 적절한 이름은 아마도 무협소설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주인공이 영웅적 삶을 꾸려가기 때문인데, 다만 여느 무협소설들과 다른 점이라면 주인공이 뛰어난 근육의 힘이 아니라 발전된 지식의 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세시대를 사는 21세기의 미래인

소설은 이연오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2078년의 시점에서 일종의 타임머신인 시낭 가마우지호를 타고 500년 전인 1578년으로 돌아가, 임진왜란을 얼마 앞둔 조선 충남의 한 지역에서 낯선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며, 결국은 모반과 혁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연오는 2078년에 31세에 이른 잡지사 기자이다. 그는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원산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서 잠수함 근무를 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자 전역해 「만일애」라는 과학잡지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다. 남북한은 그가 태어난 해에 ‘조선공화국’이라는 국호로 한 나라가 되었고, 그는 새로운 수도 개성의 한 아파트에서 만삭의 아내와 살고 있다.

어느날 충남에 있는 ‘조선물리연구소’ 부근에 시낭 가마우지가 불시착한다. 26세기에서 날아온 가마우지와 그 비행사 압둘 김은 21세기 사람들에게 의해 접수되고, 비행사는 자신이 포로가 된 것을 알자 곧 자결한다. 우연히 이 사실을 특종보도하게 된 이연오는 가마우지의 수리와 운용을 위한 ‘두더지사업’에 참가하게

첫소설 「비명을 찾아서」로

‘대체역사소설’이라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보였던 복거일씨의 새

장편 「역사속의 나그네」는 과거에

불시착한 미래인의 삶과 생각을 그려

보고 있다. 이 소설은 미래의 지식을

가진 주인공의 그 우월한 지식이

과거의 열등한 지식과 부딪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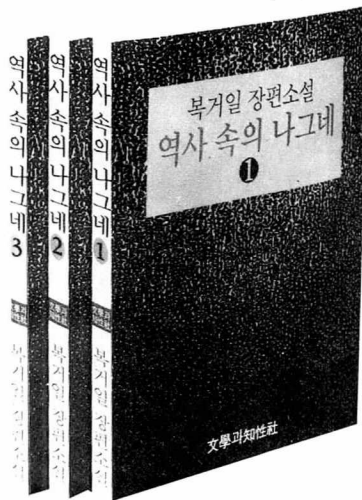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다.

되고, 가마우지의 시운전을 겸한 백악기의 자연탐사를 위해 6천5백만년 전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다가 가마우지의 기계이상으로 1578년의 세계에 좌초한다. 그는 좌초했을 경우 과거로 날아간 인간이 역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즉시 자폭하라는 두더지사업의 책임자 정장군의 명령을 무시한 채 가마우지만 폭파시키고 자신은 살아남는다.

이연오는 21세기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서라도 역사의 시간줄기를 수호하고자 차라리 아메리카로 가버릴 생각도 하지만, 생존의 조건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자신의 고향 근처에 정착한다. ‘立文’이라는 범명의 중으로 행세하면서 그가 그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는 그가 태어난 시기와 그가 정착한 시기의 서로 상충하는 역사적 권리에 대한 고뇌스러운 성찰이 짙게 배어 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합리성, 가치, 자유의지, 가능성, 우연과 필연 같은 개념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고, 현실과 꿈속에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토정 이지함과 힘겹게 싸우며 이방인 특유의 불안에 시달린다. 그러나 그는 또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학, 경영학, 군사학 지식으로 과거인들을 계몽하고, 수리계를 통한 저수지 축조사업을 둘러싸고 터진 관과의 마찰을 혁명의 불씨로 승화, 예산현정을 접수하고 천민을 해방시킨 ‘호서창의군 원수’로 우뚝 선다.

고어 복원해 소설속의 대화에 사용

초과학적인 시대와 기계를 모르는 전통의 중세사회를 함께 살아야 했던 주인공이 그가 떠난 세계와 불시착한 세계를 잇는 시간줄기를 보존하려는 끈질긴 노력을 하면서도 그 주어진 틀 안에서 전통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을



수정하며 현실에 변혁을 가하려는 ‘어려운 싸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그럴듯하게 복원해낸 중세어를 소설속의 대화에 사용하고 있는 점도 큰 특징. “나아리께서는 사또피엃자와보라 하시난디 아산 현감 나아리랄 말

쌈하시나니잇가?” 같은 문장에서 보듯, 고어사전 등의 도움을 받아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중세어의 분위기를 조성, 독자들의 실감을 북돋고 있다. 이와함께 이 소설에는 과학에 대한 작가의 치밀한 공부가 잘 반영돼 있어 작품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기도 한데, 가령 21세기의 해사와 육사 생도들이 벌이는 컴퓨터 전쟁시합 같은 것은 “충분히 그럴 법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지적 무협지로서의 고급한 유희와 삶의 진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우세한 지식과 열세한 지식이 부딪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탐구하는 이 작품은 미래인의 미래적 지식이 이용된다는 점에서 미래소설이지만 그 지식이 중세를 향해 쓰이고 있어서 역사소설이며, 가능한 과학적 상상력이 동원되기에 과학소설이지만 그 과학이 구체적인 현실의 변혁을 갈망하는 의지와 함께하고 있어 사실주의적 소설이다.

페미니즘문학 장르별 앤솔로지

지성의샘 『여성주의 문학선집』

80년대 들어 비로소 수입된 舶來語이면서도 일부 여성학 연구자와 여성운동가들에 의한 그동안의 꾸준한 논의와 문제제기로 이제는 우리 문화계의 통용어쯤으로 익숙해진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다. 80년대 중반에 창간된 여성사연구회의 무크 「여성」, 여성학 전공자 중심의 동인지 「또하나의 문화」 등이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와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 크거니와, 그에 발맞춰 특히 문학쪽에서 종래의 ‘여류’ 문학과는 구별되는 진정한 ‘여성주의’ 문학의 가능성 모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온 편이다.

최근 「지성의 샘」에서 선을 보인 ‘여성주의 문학선집’은 한국문학에서의 페미니즘문학의 현단계를 중간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기획물이다. 여성들이 쓴 문학작품 가운데서 페미니즘 문학의 관점에서 있는 작품들을 가려뽑아 시·소설·수필의 장르별 앤솔로지 세권으로 엮은 이 선집은, 페미니즘의 문학적 실천양상과 구체적 작품을 통한 여성주의문학의 현장을 확연하게 하는 개략적인



조감도의 역할을 한다.

시선집인 「소금과 여자」에는 얼마전 작고한 고정희씨를 비롯해 강은교, 김승희, 김혜순, 김경미, 나희덕, 박정남, 백미혜, 최승자씨 등 9명의 작품 63편이 실렸고, 소설선집 「큰 바다는 모두 여자를 닮았다」에는 박완서씨의 「엄마의 말뚝」을 비롯해 김지연, 우선덕, 김채원, 윤정모, 오정희, 안혜성, 이경자, 김향숙, 이남희씨 등의 작품이 각 1편씩 수록돼 있다. 수필선집 「서 있는 여자의 아침맛」은 강유일, 김금지, 김지연, 김초혜, 노향림, 송명희, 이순, 임혜기, 허영자씨의 에세이 26편을 수록하고 있다.